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사람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 왔다. 특히 농업을 해왔던 사람들은 더욱 더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며 살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농번기가 되면 순서를 정해서 하루는 ○○씨 집의 일, 둘째날에는 △△씨 집의 일을 도와주거나 도움받았었다. 이러한 풍습이 오늘날의 결혼식에 많이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결혼전에 신랑쪽에서 신부의 집으로 소중한 물건을 준다. 보물이나 시계등 여러 가지 물건을 준다.

그러나 절대로 조용하게 치르지는 않은 것 같다.

신랑의 친구와 주위사람들이 신부집의 입구에서 떠들석하게 소리지른다. 노래를 부르거나 장고 따위를 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렇게 하면 신부쪽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떡과 돈을 주며 즐겁게 논다. 제공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한사람의 축제가 아니라 온 마을전체의 축제인 것이다. 또한 마을사람들은 결혼당일 신랑, 신부집에 가서 여러가지 일을 도와준다. 보통 청소나 뒷정리를 해준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된 오늘날은 옛날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주최측은 편리한 점만을 좇아 부페에서 손님접대를 한다. 주위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며 축의금을 은행통장으로 보내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선조들은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까?